

##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축복

신학박사 조 덕운

[창세기 13:7-15] 아브람의 가족의 목자들과 롯의 가족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10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네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11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13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14 ¶ 롯이 아브람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자신들의 조국인 갈대아의 우르, 즉 오늘날 이라크의 남부를 떠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떠났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도중에 하란, 즉 오늘날 터키의 남부 지방에 정착하여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은 함께 가나안으로 여행을 했으며 수년 동안 함께 목축업을 하면서 그들의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목초지와 샘물을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두 그룹이 함께 동거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집안이 성장하면서, 혹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권 집단이 형성되고 서로 이익 추구의 과정에서 불화가 생겨서 함께 가는 것이 힘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서로 원수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롯은 서로 따로 살자고 하는 아브라함의 제안에 따라서 자신이 보기에 자연 조건이 좋은 곳을 택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오늘날 요르단의 남부 지방, 즉 사해의 동남부 지방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 절의 말씀과 같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를 이루었지만, 성적으로 패퇴하여 동성애와 혼간 등 성적 도덕이 바닥까지 내려간 패악의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평판을 아브라함과 롯이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롯은 그러한 패악의 도시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습니다 (12 절). 롯은 아마도 자신의 하나님 신앙이 자신과 가족을 소돔의 사악함으로부터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롯은 목축업을 정리하고 도시 생활을 하면서 소돔의 패악한 문화 가운데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느라 많은 싸움을 했다고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베드로후서 2:6-8]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7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 내셨으니, 8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도덕적 패악을 보고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과 아브라함이 당면했던 선택과 유사하게 우리 역시 어떠한 환경 속에 살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롯은 소돔을 향하여 자의적으로 갔지만, 그 선택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을 도덕적 패악의 한 가운데로 몰아 넣어 자신은 그 패악으로부터 순결하게 지킬 수 있었을지 몰라도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주님과 협상한 결과 그 도시에 의인, 즉 하나님을 믿는 신도들이 10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롯은 자신과 아내, 그리고 딸 둘을 포함하여 4 명만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를 받아 소돔을 탈출 했습니다. 그 탈출 도중에 롯의 아내는 소돔에 남겨둔 두 딸과 사위들 생각에 뒤돌아 보아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패악의 골짜기로 내려갈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그 변화의 속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권 시절 2015 년 6 월 26 일에 동성 결혼이 대법원의 합법 판결을 받았고, 그 이후에 온 세계에서 동성애와 성 자유화 운동이 공공연하게 이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수천년전 소돔 시민 롯처럼 이러한 도덕적 패퇴 추세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최악의 도시로 옮겨 가고 있었을 그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14-15] 롯이 아브람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남아서 먼 훗날에 올 축복의 약속에 관한 훌륭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로 가득찬 곳이었고 거기에도 도덕적 타락이 있었을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처로 취하는 일을 못했습니다 [창 20 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아비멜렉은 그와 상호 불가침 및 화평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창 21 장].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 땅을 떠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먼 훗날의 축복을 믿음으로 믿고 나그네의 생활을 충실히 계속했습니다:

*[히브리서 11:8-10]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9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10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 이시니라.*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과 롯이 처한 선택의 장에서 있습니다. 현세의 이익을 위하여 도덕적 패악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살 것인가, 그리하여 멸망의 무리의 한 가운데서 어려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자신과 가족을 매일 패악의 영향 가운데 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주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의 도래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구획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참된 신앙을 지키면서 살 것인지 선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2022 년 동안에 자의적으로 도덕적 패악을 향하여 가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충실히 머물기 소망합니다. 아멘.